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

A Comparative Study on a General Culture concerning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강 미 혜(Mia Hye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3. 연구의 분석 및 가설검증 |
| 2. 연구방법 및 가설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그룹I)와 학과제학생(그룹II) 및 학부제학생(그룹III)이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도를 갖고 있으며 필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지를 조사·비교하는 것이다. 주제전문사서 105명과 학과제, 학부제학생 168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전문사서직에 대한 인식도는 세 그룹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적합한 학력은 그룹I이 주제분야학과와 문헌정보학석사를 갖추는 것이었으며, 그룹II의 15.3%와 그룹III의 82.9%가 부전공/복수전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상적인 전공이수학점은 그룹I과 그룹III은 37-45학점, 그룹II는 46-55학점으로 나타났다. 3) 주제전문사서직이 가장 필요로하는 일반전공지식은 세 그룹 모두 '컴퓨터'와 '영어'로 나타났다. 4) 문헌정보학의 교과목은 그룹I은 이론과목을, 그룹II와 III은 기술과목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5) 미래사서의 역할은 세 그룹 모두 정보자료의 소장과 더불어 정보접근방법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opinions of three different groups -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group I), students of department programs(group II) and students of college programs(group III) - as to whether these groups have a different way of thinking from each other concerning a general culture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Questionnaire are carried out for this research and the responses analyzed to draw a conclus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to be important to all three groups and a desirable academic career of group I shows a tendency to have both B.A. degree in the subject field and M.A. degree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15.3% of group II and 82.9% of group III appear to be belonging to either minor or double major programs, 2) the 37-45 major credits to be ideal to group I & III, and 46-55 group II, 3) a knowledge in 'Computer' and 'English' is mostly demanded to all three groups as the general culture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4) theoretical courses to be very important to group I, and technical courses to group II & III, 5) the collection and access of library materials to be regarded to all three groups as an important role for future librarians.

* 본 연구는 1998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9년 2월 18일

1. 서론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 librarian)는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에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을 말한다(Young 1983, p. 220). 주제전문사서는 특수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도서관, 대규모 공공도서관에서 필수적이다.

주제전문사서직은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봉사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봉사정신에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강미혜 1998). 주제전문사서가 본래의 역할을 원활히 발휘하여 학문연구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면, 도서관의 이미지는 당연히 향상될 것이고 사서직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며 도서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주제전문사서직에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주제전문가의 개념과 이론을 새롭게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험프리즈(Humphreys)와 구츠만(Guttsman)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휴슬러(Fussler 1949)는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가(bibliographer)의 폭넓고 깊은 역할에 대하여 그 개념설정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의 이론을 밝힌 바 있으며, 브록(Brock 1961)은 주제분야별 도서관에서의 참고활동에 대한 논문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후 버드(Byrd

1966)는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가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고, 하로(Haro 1967)는 주제전문가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주제전문가라는 용어 대신 서지가(bibliographer)라는 말을 쓰면서 대학도서관 조직에 있어서 서지가의 영향력은 점점할 것이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의 홀부르크(Holbrook 1972)가 기술계 대학에 있어서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분석을 시도하여 정리하는 한편,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논문이 1974년 6월에 영국의 크로슬리(Crossley)와 미국의 스미스(E. Smith)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이 두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이 분야 연구의 결산과도 같은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인 크로슬리의 논문은 구츠만(Guttsman)과 험프리즈(Humphreys)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시킨 논문이며, 동시에 영국에서의 주제전문가에 대한 제 이론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Crossley 1974). 스미스의 논문은 미국에서의 이 분야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그는 주제전문가는 '지식노동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대학도서관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mith 1974). 그밖에 그레이션과 영(Gration & Young 1974)은 주제전문사서제도를 채택할 경우, 장서의 제거, 복본 구입의 적절한 판단, 교과과정과의 교량적 역할 등을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보서비스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제전문사서직이 정착되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대에서 배출되는 준사서들은 주제배경이 취약한 면이 강하며,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역시 일정 학점이상 타 전공분야를 이수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하지 않아 주제전문사서 양성은 제도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다.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도 학부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을 선택하게 되므로 주제전문화 강화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학부과정의 타 주제분야 전공자가 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문헌정보학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사서교육원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타 주제분야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가 이수할 경우 이미 주제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의미있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이 될 수 있다. 다만 정규 학과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자격을 부여하므로써 정규 학과 학생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교육상황에서 주제전문사서의 배양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개혁으로 대학교육이 학과중심체제에서 학부제중심체제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학부제의 기본 취지가 최소전공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학부과정에서 2개이상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서양성제도의 골격을 학부과정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인 학부제 도입에 따라 요구되는 다전공 교육과

관련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필요성과 인식도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현황과 요구를 파악해 봄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주제전문사서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본영(1998.6, p.211)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문헌정보학의 전통적인 핵심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셰라(Shera 1972, p.389)가 주제전문사서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놓은 일반전공교육(General Culture)과 주제전공교육(Scientific: Hard Sciences and Soft Sciences) 중에서 일반전공교육만을 다루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가설

2.1 조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과정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105명과 학과·학부제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 선정기준은 「한국도서관통계, 1997」를 기준자료로 삼아 서울시내 전문도서관 중 금융, 사회과학,

〈표 1〉 연구대상 도서관별 사서수

도서관	인원 (명)
경영·경제 분야	19
금융 분야	19
기술과학 분야	22
사회과학 분야	11
전기·통신 분야	21
종교 분야	13
합 계	105

기술과학, 전기·통신, 경영 및 종교분야의 도서관으로써, 그 규모는 사서수 5명 내외의 중간규모이며 특정주제분야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학부제를 시행한지 가장 오래된 세 학교(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 1996년 시행)와 1997년에 시행한 덕성여대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1일에서 9월 13일까지로 조사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질문지의 회수율은 <표 3>과 같다. 사서 질문지는 99.5%가 회수되었고, 학과제 및 학부제 학생들의 질문지는 100% 회수되어, 유효한 응답지 273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주제전문 사서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자료들을 참고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교육

<표 2> 연구대상 학과·학부제 학생수

학 교	학과제(명)	학부제(명)
덕성여대대학교	57	17
성균관대학교	18	15
연세대학교	23	19
이화여자대학교	없음	19
합 계	98	70

을 받은 학생들, 학부제 시행하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각자가 주제전문사서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와 주제전문 사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자유기술식 질문과 Likert type 척도로 설계하였고, 사서용 13개, 학생용 15개로 하였다. 그리고 상기문항외에 사서와 학생의 인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문항도 포함시켰다.

질문지의 분석은 frequencies, chi-square test, t-test, anova, duncan 등의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전산처리는 PC용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항목간의 평균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grouping을 위하여 dunca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F통계량은 F로, T통계량은 T로, P통계량은 P로 표시하였다.

2.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장 주제전문사서와 학과제 학생 및 학부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일반전공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 및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3> 질문지 배포 및 회수율

구분	발송	회수	유효	회수율(%)	유효율(%)
사서	110	105	105	99.5	99.5
학생	168	168	168	100	100

1. 주제전문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학부제가 학과제보다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적합한 교육방법일 것이다.
2. 이상적인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주제전문사서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전공 지식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문헌정보학의 일반전공과목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미래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105명과 학과·학부제 학생 168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제전문사서와 학생들의 인식도와 교육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부제가 시행된 기간이 짧아 그 특성을 완전히 반영할 정도로 정확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의 분석 및 가설검증

3. 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3. 1. 1 주제전문사서 집단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는 총 105명으로서 이 가운데 남성이 22명(21.6%), 여성이 83명(79.0%)으로 여성응답자가 월등히 많았다. 주제전문사서의 연령은 20대가 32.4%(34명), 30대가 49.5%(52명)로 젊은 사서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서자격을 보면 1급 정사서가 16.2%(17명), 2급 정사서가 68.6%(73명)로 정사서가 84.8%를 차지하였다. 근무년수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는 49.5%였으며, 담당업무는 정리업무담당 사서가 23.8%, 참고봉사담당 사서가 23.3%였고 그 외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제전문사서의 학력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현장의 주제전문사서 응답자 가운데 문헌정보학과 주제분야의 교육배경을 모두 갖춘 경우는 10.9%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이 이수한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계열이 57.6%(49명), 인문과학 계열이 21.2%(18명), 자연과학 계열이 14.1%(12명), 예체능 계열이 7.1%(6명)로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이것은 피어슨(Pearson 1988)의 조사에서 아직도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만 사

<표 4> 주제전문사서의 학력

문헌정보 학사	주제분야 학사	문헌정보 학사/석사	문헌정보학사 + 주제분야 석사	주제분야 학사 + 문헌정보석사	문헌정보학사 / 석사/박사	기 타	합 계
60	6	17	2	6	1	10	102
58.8%	5.9%	16.7%	2.0%	5.9%	1.0%	9.8%	100%

서가 압도적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의 주제전문사서가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주제분야는 사회과학계열이 521%(74명), 인문과학 계열이 225%(32명), 자연과학 계열이 239%(34명), 예체능 계열이 14%(2명)로 나타났다. 즉, 자연과학 계열의 전공희망자가 인문과학 계열의 전공희망자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전산관련 분야를 전공하려는 사서가 22명으로 나타났다.

3. 1. 2 학생 집단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는 총 168명으로서 이 가운데 남성이 24명(14.3%), 여성이 144명(85.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학과제 학생은 4학년 학생이 54.1%, 3학년 학생이 43.9%였고, 학부제 학생은 2학년이 61.4%, 3학년이 35.7%였다. 이것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저학년 학부제 학생과 고학년 학과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했었기 때문이다. 학부제 학생들 중 문헌정보학을 제1전공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69.7%, 제2전공으로 하는 경우는 25.8%,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3. 2 주제전문사서직에 대한 인식도 및 일반전공교육

3. 2. 1 주제전문사서직에 대한 인식도 및 교육방법

가설 1. 주제전문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는 학부제가 학과제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적합한 교육방법일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chi-square 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1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먼저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학문배경을 분석한 결과는, 주제전문사서의 93.3%(97명)가 주제분야의 지식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전문도서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6%(92명)로 나타나 현장 사서들은 주제분야에 대한 학문지식을 갖춘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의 사서들이 가장 적합한 학문수준이라고 본 것은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9.0%(51명)가 주제분야 학사와 문헌정보학 석사를 함께 갖추는 것이었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한 결과 F=1.14로

<표 5> 주제전문사서의 비람직한 학력

주제분야학사 + 문헌정보학 석사	문헌정보학사 + 주제분야 석사	주제분야학사 + 사서교육원	문헌정보학사 + 주제분야 부전공	문헌정보학사+ 주제분야 학사	기 타	합 계
51	19	4	12	15	3	104
49.0%	18.3%	3.8%	11.5%	14.4%	2.9%	100%

〈표 6〉 주제전문사서 역할의 중요성 인식도

	mean(n)	T	P-value	χ^2
학과제	1.255(98)	0.0528	0.1116	0.121
학부제	1.400(70)			

〈표 7〉 문헌정보학 이외에 하고 있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명)

계열	학과제	학부제	가장 많이 선택된 학과(인원)
인문과학계열	10	23	영문학과(12)
사회과학계열	2	32	심리학과(10)
자연과학계열	0	1	전산학과(1)
예체능계열	0	0	
기타	3	2	교 직(5)
합계	15	58	합계(28)

〈표 8〉 학생들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 % (명)

내용	학과제	학부제
꼭 해보고 싶은 학문분야이므로	12.5 (2)	19.2 (10)
적성에 맞아서	18.8 (3)	11.5 (6)
졸업후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	6.3 (1)	3.9 (2)
다른 사람의 권유로	6.3 (1)	9.6 (5)
기타	6.3 (1)	9.6 (5)
합계	100 (16)	100 (52)
Mean(n)	3.313 (16)	3.462 (52)

T=0.7343 P=0.5236

F통계량이 크지 않았고, $P=0.3346$ 으로 유의확률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6〉은 주제전문사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학과제와 학부제 학생들의 인식도로서 학과제 학생이나 학부제 학생 대부분이 도서관(특히 전문특수도서관)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이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학과제 학생이

15.3%(15명), 학부제 학생이 82.9%(58명)로 나타났다(표 7).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세 그룹 모두 높았고 학부제는 학과제보다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좀더 적합한 교육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표 8〉과 같다.

그리고 학과제 학생들과 학부제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전공 선택과 타 분야의 부전공 선

택은 학문적 또는 실용면에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test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권유'와 '졸업 후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문헌정보학의 선택은 실용적 가치를 보는 반면에, 복수 또는 부전공을 선택할 때는 꼭 해보고 싶은 학문분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2. 2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
 가설 2. 이상적인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몇 학점이 필요한지를 one-way ANOVA, duncan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가설 2는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주제전문사서와 학부제 학생은 37-45학점이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학과제 학생들은 46-55학점이 이상적인 학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이 현재 이수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별로 응답한 이상적인 학점은 <표 12>와 같다.

<표 9> 문헌정보학과 부전공의 연계성

	mean(n)	T	P-value
학과제	2.063 (16)	0.5310	0.4904
학부제	2.189 (53)		

<표 10>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내 용	학과제	학부제	% (명)
다른 사람의 권유로	22.3 (21)	14.8 (9)	
졸업후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	22.3 (21)		
적성에 맞아서	14.9 (14)	26.2 (16)	
꼭 해보고 싶은 학문분야이므로	16.0 (15)	18.0 (11)	
기 타	18.1 (17)	9.8 (6)	
합 계	100 (94)	100 (61)	
Mean(n)	3.00 (94)	2.54 (61)	

T = 0.0356 P = 0.9240

<표 11> 세그룹간의 이상적인 학점 비교

	주제전문사서	학부제	학과제	F-value	P-value	χ^2
Mean(n)	2.29 (97)	2.18 (70)	3.04 (97)	24.25	0.001	0.001
Grouping	1 그룹		2 그룹			

〈표 12〉 문헌정보학전공의 전공최소이수화점에 대한 의견

(명)

현재 전공최소이수화점	만족도	이상적 전공최소이수화점	학과제	학부제
30-36	적다	30-36		
		37-45	2	
		46-55	1	
		56이상	1	
	적당	30-36	1	
		37-45	1	
		46-55		
		56이상		
많은편	30-36			
	37-45			
37-45	적다	37-45		
		46-55	2	4
		56이상		1
	적당	30-36		
		37-45	2	5
		46-55	1	
	많은편	56이상		
		30-36	1	
		37-45		
46-55	적다	37-45		
		46-55		
		56이상		
	적당	30-36		
		37-45		
		46-55		1
	많은편	56이상		1
		30-36		
		37-45		
56이상	적다	46-55		
		56이상		
		30-36		1
		37-45	1	
	적당	46-55	5	
		56이상	13	
		30-36		
	많은편	37-45	2	
46-55		4		
56이상				
합 계			96	68

3. 2. 3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지식

가설 3. 주제전문사서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전공지식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이나 주제전공 이외에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순위를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13>은 각 항목간의 평균비교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고 grouping에 duncan을 사용한 것이다. 분석결과,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주제전문사서는 '영어'와 '컴퓨터' 둘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제 및 학부제 학생 모두는 동일하게 '컴퓨터'를 1순위,

'영어'를 2순위, 기타 외국어가 3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의 지식으로는 '상식', '교육학', '특수분야 전공지식', '도서관운영에 대한 지식', '편목·분류', '우리말 실력'과 '친절', '봉사정신', '교양', '인성', '마음가짐' 같은 이용자에 대한 봉사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외국어의 순위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학과제 학생과 학부제 학생이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4>).

학생들이 졸업 전에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순위에서는 '정보검색사', '정보처리기사'가 학과제 및 학부제 학생 모두에게서 1순위로 나타났다. 학부제 학생의

<표 13>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지식

전문사서			학과제			학부제		
grouping	category	mean(n)	grouping	category	mean(n)	grouping	category	mean(n)
1그룹	mean(n)	1.55(98)	1그룹	컴퓨터	1.23(63)	1그룹	컴퓨터	1.38(78)
	컴퓨터	1.56(99)	2그룹	영 어	1.93(63)	2그룹	영 어	1.80(77)
2그룹	외국어	2.92(89)	3그룹	외국어	2.92(62)	3그룹	외국어	2.83(78)
3그룹	기 타	3.62(24)	4그룹	기 타	3.66(13)	4그룹	기 타	3.76(25)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169.24	0.0001		169.12	0.0001		146.74	0.0001	

<표 14> 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어 순위

%(명)

구 분	순 위	학 과 제	학 부 제
영 어	1 순위	3.1 (3)	9.0 (6)
	2 순위		
일 본 어	1 순위	7.0 (6)	12.7 (8)
	2 순위		
중 국 어	4 순위	19.2 (10)	21.2 (11)
	3 순위		

24.2%(8명)는 '전공연계 2전공'이 1순위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학부제에서 이중전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사서교사자격증'은 3순위로 나타났고 기타로는 '언어관련 능력시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PCT(PC능력 종합시험)', 'DB관련 자격증',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었다. 질문지에 제시한 자격증 6가지 가운데 상위 자격증의 순위는 <표 15>와 같다.

3. 2. 4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일반전공 과목

가설 4.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문헌정보학의 일반전공과목은 주제전문 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와 duncan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주제전문 사서는 '도서관자동화'를 가장 필요한 교과목으로 나타냈고 '문헌정보학 개론'과 같은 일반적인 개론과목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은 '정보검색'과 '정보자료조직'이 제일 필요한 교과목으로 나

타냈고 '도서관자동화'와 '문헌정보학개론'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보자료조직' 과목을 1순위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해 현장의 사서는 3순위로 보는 등 차이가 나는 것에서 학생들은 기술적인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데 비해 현장 사서는 보다 이론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2. 5 미래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가설 5. 미래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와 duncan이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미래의 사서역할이 무엇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비교표는 <표 17>과 같다.

학과제·학부제 학생과 현장의 사서들 모두 미래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성공한 도서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는 정보자료 소장과 더불어 정보 접근방법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표 15>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격증

구분	학과제		학부제	
	순위	비율(명)	순위	비율(명)
정보처리기사	1순위	36.8 (25)	1순위	36.4 (20)
	2순위	36.8 (25)	2순위	36.4 (20)
정보검색사	1순위	35.9 (28)	1순위	32.1 (18)
	2순위	35.9 (28)	2순위	32.1 (18)
사서교사	1순위	24.4 (11)	3순위	24.2 (8)
	2순위	24.4 (11)	2순위	24.2 (8)

〈표 16〉 전문사서직에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과목

전문사서			학과제			학부제		
grouping	category	mean	grouping	category	mean	grouping	category	mean
1그룹	도서관 자동화	3.19	1그룹	정보검색	3.08	1그룹	정보검색	2.64
2그룹	문헌정보학 개론	3.36		정보자료 조직	3.266		정보자료 조직	3.29
	정보검색	3.91	2그룹	도서관 자동화	3.78	2그룹	도서관 자동화	4.12
3그룹	정보자료 조직	4.08		문헌정보학 개론	4.9		문헌정보학 개론	4.74
	4그룹	주제별 서지	4.63	3그룹	주제별 서지	5.38	3그룹	주제별 서지
			멀티미디어 어론		5.47	장서개발		5.54
5그룹	서지학	6.56	4그룹	장서개발	6.42	4그룹	멀티미디어 어론	6.24
				5그룹	기 타		9.4	5그룹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22.97	0.0001		15.37	0.0001		24.55	0.0001	

〈표 17〉 미래의 사서 역할

전문사서			학과제			학부제		
grouping	category	mean(n)	grouping	category	mean(n)	grouping	category	mean(n)
1그룹	⑤	2.27(88)	1그룹	⑤	2.10(58)	1그룹	⑤	2.34(87)
2그룹	②	2.82(90)	2그룹	④	2.32(1)	2그룹	④	2.54(88)
	④	2.93(87)		②	2.71(64)		②	2.80(85)
	③	3.04(89)	3그룹	③	3.60(61)	3그룹	③	3.20(84)
3그룹	①	3.61(83)		①	3.93(61)		①	3.58(80)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11.60	0.0001		25.30	0.0001		12.25	0.0001	

* 질문지의 보기 내용 ;

- ① 정보문명의 교차역할
- ②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 ③ 이용자 서비스 업무에 보다 더 많이 참여
- ④ 주제학문분야의 전문사서로 영역을 넓히고, 도서관의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⑤ 미래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 하는데 성공한 도서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정보자료 소장과 더불어 정보접근방법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래에는 주제학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서의 역할이 한층 넓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학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미래의 사서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비슷하게 나왔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현장 주제전문사서와 학과제 학생 및 학부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 및 비교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105명과 학과·학부제 학생 168명으로 하였다. 주제전문도서관은 금융, 사회과학, 기술과학, 전기·통신, 경영 및 종교분야로 선정하였고, 학교는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덕성여대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문항은 사서용 13개, 학생용 15개로 하였다. 내용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들이 주제전문사서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와 문헌정보학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전문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주제전문사서의 93.3%가 주제전문분야의 학문이 현장근무에 많이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주제는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이었으며 (3.1.1 참조), 가장 적합한 학력수준은 주제분야 학사와 문헌정보학 석사를 함께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전공/복수전공을 하는 학과제 학생들은 15.3%로 나타났고, 학부제 학생들은 82.9%였으며 그들 중 73.6%가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부제는 특히 주제전문사서직을 위한 교육으로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상적인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은 주제전문사서와 학부제 학생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과제 학생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많은 주제전문사서와 학부제 학생은 37-45학점이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이 유사하였고, 많은 학과제 학생들은 46-55학점을 이상적인 학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제전문사서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일반전공지식은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즉, 주제전문사서는 '영어'와 '컴퓨터' 둘 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제와 학부제 학생 모두는 동일하게 '컴퓨터'를 1순위로, '영어'를 2순위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제전문사서직에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은 주제전문사서와 학생들간에는 차이

가 있었으나 학생들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주제전문사서는 대체로 문헌정보학의 이론과목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기술과목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래의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도는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세 그룹 모두가 미래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성공한 도서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는 정보자료 소장과 더불어 정보접근방법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제전문사서직이 되기 위한 교육으

로는 학부제가 학과제보다 훨씬 용이하므로 학부제의 시행은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학부제시행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최소이수학점이 30-36인데, 응답자 대부분이 37학점 이상을 이상적인 문헌정보학 전공이수학점이라고 보았으므로 학부제의 전공최소이수학점을 좀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제전문사서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전공지식으로 '컴퓨터'와 '영어' 과목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과목을 필수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갈수록 문헌정보학 교과목 가운데 기술과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의 사서들은 이론과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기술과목과 더불어 이론과목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혜. 1998.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권 : 1-2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구본영. 1996.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 3-50.
- _____. 1998. "문헌정보학에서의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 교육과정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 211-232.
- 김달식. 1997. "한국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명옥. 1997.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 121-138.
- 엄영애. 1997.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변화" 도서관학논집 제29집 : 107-130.
- 이용재. 1998.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 : 273-312.
- 최석두. 1993.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282 (10) : 321-324.
-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1996.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통계. 1997. 1997.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Brock, Clifton. 1965. "Reference Service in the Divisional Plan Library : Some Tentative Ques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2 : 449-456.
- Byrd, Cecil K. 1966. "Subject Specialists in a University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 : 191-193.
- Crossley, C. A. 1974.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n Academic Library :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s 26 : 236-239.
- Fussler, Herman H. 1949. "The Bibliographer Working in a Broad Area of Knowledg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0 : 199-202.
- Gration, Selby U. and Arthur P. Young. 1974. "Reference-Bibliographers in the College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5 : 28-34.
- Haro, Robert P. 1967. "The Bibliographer in the Academic Librar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3 : 163-169.
- Holbrook, A. 1972. "The Subject Specialist in Polytechn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73 : 393.
- Pearson, Richard C. & T. D. Webb. 1988. "새로운 사서들(The New Librarians)." 도서관연구 5 : 98-103.
- Shera, Jesse H. 1972.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 Becker and Hayes.
- Smith, E. 1974. "Impact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on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Academic Research Library.”
Academic Library : Essays in Honor of
Guy R. Lyle. Edited by Evan I.
Farber and R. Walling. Metuchen :

Scarecrow : 71-81.

Yang, Mei-hwa. 1992. 이진상역. “중화민국의
미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제언” 국회
도서관보 219 : 105-116.